

〈격려사〉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자

이 기 혁

(제일교회 목사 · 본교 설립자)



우리 인성은 남을 잘 돕는 사람을 기르는 학교라는 전통을 세우도록 하자.

옛적에 고려표란 사람이 있었는데 군인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기도할 때에 환상이 나타나셨다. 「네 기도함과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신 일이 있었다. 이 고려표는 사람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모범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었다고 하였다.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이웃과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즐겁고 의의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더우기 이웃과 협력하고 남을 돕는 것으로서 이웃에 빛이 되고 자신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고 하였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 사회를 위하여서도 사명이 있는 것이요, 학교는 자기 학

생만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지 못하는 소년 소녀에게 대한 책임도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하신 것은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금은 자체가 녹아 없어져서 남을 맛나게 하며 촛불은 자신이 타므로써 방안을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체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소금과 빛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찍 교훈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이를 기억하라」 하셨고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 어린애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남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드시 할 의무요 또 영광의 사명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나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는가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 살림이 풍부해진 다음에 남을 돕겠다는 정신은 일평생 좋은 일은 못해보고 말 사람인 것이다. 그런고로 사도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우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신신 부탁하여 인생의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교훈하신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기억한다. 미국 오하요 주에 있을 때에 어느 여름 날 누집을 방문했다. 그 집에 예수 살이 넘은 다리 없는 늙은 할머니가 바퀴 의자에 앉아서 현 옷을 뜯어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무엇을 하려고 인형을 만드느냐? 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외로운 아이들에게 선사하려고 한다고 대답함을 듣고 감명 깊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한다. 불우자이면서도 외로운 아이들을 위로하고 돕겠다는 그 심정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 인성의 딸들아!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길러서 전통을 만들고 기리 기리 우리 학교의 혼을 이룩하자. 「무엇이든지 심은대로 거둔다」.